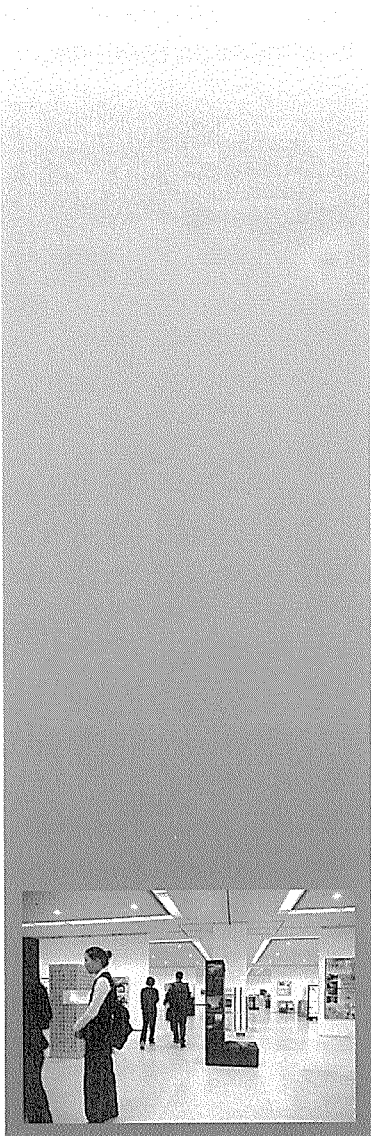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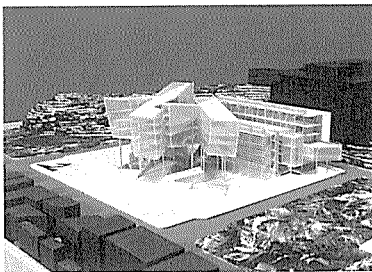


## '98 대한민국건축대전

일시: 1998. 10. 10 ~ 10. 16  
장소: 예술의 전당 미술관



### 대상 /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계획안 이승훈(건국대 건축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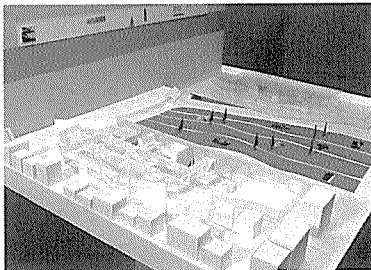


이 프로그램은 건축의 영역을 확장하여 건축, 도시, 조경, 실내 분야의 설계교육을 전담할 건축대학과 건축대학원을 위한 건축학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창의적이고 이상적인 건축교육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건축, 도시, 조경, 실내 등 분야 간의 수평적 관계와 학부에서 대학원, 그리고 교수 연구에 이르는 수직적 관계들이 신축적이고 통합적으로 연계되도록 Open Studio와 전시 및 이벤트 홀, 도서 정보센터, 콩코스 등 여러 사적·공적 장소들에서 다양한 접촉과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학과 도시의 만남'이라는 명제하에 Sunken Square와 연계되는 지하공간은 도시적 시설인 Gallery와 Art Book Store, 그리고 시민참여 Workshop 등을 수용하여 전체가 하나로 '통합된 교육의 장소'를 구성하도록 한다. 대지의 특성상 대학과 도시를 연결하는 Passway를 구성하여 건물 전체가 캠퍼스 서쪽 Gate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겸사진 Slab를 통해 확장되어지는 Sequences는 다양한 공간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 우수상 / Mediapark Joungmyo

한서영(홍익대 건축학과 4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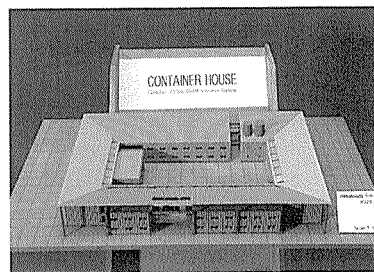
현대의 각종 Media가 모여 있는 이 Media Park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Cyberspace

나 TV에서의 공간경험을 참고한다면 우리는 그 시발점을 찾을 수 있다. 단추 하나면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 가능한 단편적 공간구조, 이것을 만들기 위해 미로와 동양 산수화의 구조를 합쳐서 이용하는 데 이 Project의 목적이 있다.

1. 종묘: 종묘 계단의 구름을 보았는가. 이것은 죽음을 위한 가상의 땅이다. 이곳 공원의 한 변을 완성시키는 삶의 가상공간을 만드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
2. 가로: Mediapark를 가로공원화 해보자. 이 가로를 중심으로 각종 정보와 공간이 흩어져 존재한다. 내관자는 마음에 드는 장소에 머무를 수도 있고, 정보를 찾아 한없이 돌아다닐 수도 있다. 다양한 목적, 다양한 속도를 조직하며 유연성까지 붙잡는다.
3. 미로: 원한다면 한 길에서 옆길로 언제든지 갈 수 있다. 길 사이의 여백은 Cyberspace나 TV에서 공간도약 경험 산수화의 여백에서의 공간초월을 느끼게 한다. 여러 문을 통해 언제나 입출입이 가능하다.
4. Colloge Space: 성격이 다른 여러 공간의 맞붙임. 산의 다양성 공간도약
5. 정보의 담: 왜 우리는 성벽 이미지에만 집착하는가. 모든 것을 흡수하는 반투명 유리벽. 벽 안과 밖의 스크린. 산수화의 현상적 투명성인 여백.

### 우수상 / 컨테이너 하우스

남익호(홍익대 건축학과 4학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안 등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건축적 제안은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많은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실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다. 이에 지금까지 제시된 기존

의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주거형태를 제시한다.

Container를 이용하여 기존의 콘크리트 중량 건물이 아닌 조립, 해체, 이동, 재활용, 대량생산이 가능한 저렴한 주거 형식을 제안한다.

Container House의 적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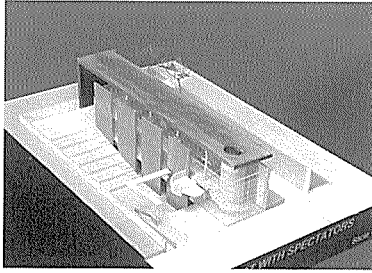
(1) Homeless를 위한 임시주거 시설 - Container Unit을 복도가 포함된 주거 Unit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을 계획한다.

(2) 저소득층 부실주거 개선 - 현재 비닐 하우스들이 대지의 특성을 고려 화훼재배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원예재배 공간을 주거부와 연계시켜 공간 구성한다. 재배공간에는 각종 식물의 특성에 따라 채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재민을 위한 가설주거안 - 재해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주거 시설을 필요로 한다. 기존 택지 외에 주변 나대지(경사지)를 Container Level 차를 조정함으로써 경사지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 우수상 / 그들은 관객들과 함께 존재한다

최세원(경희대 건축공학과 대학원)



연극인을 위한 납골당

모지 수가 증가하면서 모지 면적이 증대되어 토지이용이 비효율적이다. 이에 '납골당'이라는 대안이 대두되어지고 있다.

기존의 납골당을 살펴보면 주로 도시 밖에 형성되어지며 죽은 자와 그 유족을 위한 공간으로 폐쇄적·상징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반해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납골당(죽은 자의 공간)은 도시(산 자의 공간) 속에서 그 지역상황에 적응하여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고, 그 지역의 형태를 활성화하는 도시 속의 납골당이다.

연극 공연장이 많은 대학로에 연극인을 위한 납골당을 형성하여 피카디리극장 앞 광장(영화인들이 손도장 찍은 광장)과 같이 상징적 공간으로 활성화된 공간을 제안한다.

기존의 대로변 휴식공간을 Street Gallery화시켜 이 납골당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비디오 갤러리로 납골당의 진입부로 구성한다. 마당은 추모제 때 제의식과 그들(죽은 자)의 연극 Revival이 이루어지는 휴식공간으로 구성하여 죽은 자와 산 자가 행위를 같이 하는 공간이다. 이 납골당엔 다섯 개의 상징벽이 있다. 이는 극작가, 연출가, 스태프, 연극인, 그리고 관객이라는 연극의 5요소를 상징한다. 연극의 다섯 번째 요소인 관객은 연극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자인 4개의 상징벽에 의해 내부공간은 계획되어지며 납골공간과 문헌 이들의 전시공간이 연계된다. 다섯 번째 상징벽은 유리벽으로 동선상에 외부의 모습(관객인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 일반공모부 심사평 / 강석원(심사위원장)

금번 제17회 건축대전은 그 동안의 심사방법을 바꾸어 1차와 2차 심사로 시행한 첫 번째 대전이다. 사상 최대의 출품으로 총 1,131개 작품이 1차에 접수되었으며, 그 중 1/10 정도인 135개 작품이 입선후보작으로 선정되었다. 2차에는 126개 작품이 접수되었으나 건축대전의 수준을 지키려는 각고의 노력 끝에 14점을 탈락시키고 112점을 입선으로 결정하였다.

예년에 비해 2배에 가까운 많은 응모자 수에도 불구하고 입선작은 예년의 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장시간의 심사 끝에 그 중 특선 후보작 11점을 선정하여 공개 토론회를 가졌으며, 진지한 발표와 토론 끝에 심사위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대상 1점, 우수상 3점, 특선 4점을 선정 발표했다.

다양한 주제, 독특한 해석과 전개로 돋보이는 작품들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수상작은 8점에 불과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대상작품인 「건축대학」은 기존 대학의 캠퍼스 내에 가로에 면한 부분을 열어 도시를 끌어들이면서 표현한 점이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

우수상으로는 도심에 위치한 「연극인 납골당」과 임시주택으로서 「컨테이너 하우스」가 선정되었는데, 「연극인 납골당」은 중요문화를 개선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전문인의 납골당과 추모 기념공간, 행사공간 등을 합하여 현실 속에 함께 존재하는 건축을 만들고자 한 점, 「컨테이너 하우스」는 임시 Low Cost Housing이라는 주제를 장인적인 탐구를 통해 실현시킨 현실적 실험정신으로, 「Media Park 종묘」는 놀리적인 접근과 표현으로 세련되면서도 신선한 자극을 준 점 등이 타작품들에 비해 우수하다고 평가되었다.

그밖에 특선작들도 작가적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는 수작들로 건축심리 경험공간, 도시사찰, 환경정보센터, 이동형 가변형 소극장 등의 작품도 작품정신이나 성취도가 뛰어나 앞으로의 정진이 기대된다.

최종 결선까지 올라왔으나 안타깝게도 탈락한 3작품은 건축적인 성취도를 좀 더 높이거나 설득력있는 성숙한 표현을 하였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최선을 다해 준 응모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건축대전이 명실상부한 최고의 건축가 축제로 계속되기를 기대한다.